



攝
信
心
實
愛
慈
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1988年(檀紀 4321年) 8月 31日 第 135號 [1]

哲
炫
容
在
益
申
盧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 (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東岳人「아이거北壁」정상에 서다



▲ 끈질긴 집념으로 암벽등반의 세계적 난코스인 「아이거 북벽」에 우뚝선 김진성 대원.

▼ 본회가 주최한 동국알프스 등반대 환영회 모습.



세계最難「아이거 북벽」등정…東國빛내 金鎮晟·安鎮燮대원 재도전 끝에 성공

동국알프스등반대가 지난 6일 하오 6시30분 (현지 시간) 암벽등반의 세계 최난코스인 유럽알프스 아이거북벽 (해발 3,970m) 등정에 성공, 동국의 명예와 민족의 기개를 전세계에 밝혔다.

趙龍在 (72 정외) 원정대장을 비롯 8명의 동문·재학생으로 구성된 이번 등반대는 7월 16일 장도에 올라 첫 도전에서 許宗行 (건축과 4년) 대원을 잃는 역경을 무릅쓰고 金鎮晟 (전산과 3년), 安鎮燮 (체교과 2년) 대원이 끝내 성상을 밟아 지난 80년 마나들루 등정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했다. <관련기사 3·8면>



'88 서울올림픽과 버거잭햄버거의 만남!



햄버거 전문업체 버거잭이
'88 서울올림픽 전경기장 매장영업업체 및
대회운영요원 급식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품질우선, 위생우선,
서어비스 우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버거잭은 대회기간 ('88. 9. 17 ~ 10. 2.) 중 올림픽 캠플레스, 올림픽파크 및 축구예선이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전 경기장내 64개 매장에서 양식부문 영업업체로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아울러 대회 운영 요원의 영양가 높은 급식을 위해 햄버거 및 양식세트도 공급합니다.

■ 가맹점 모집안내

신청접수처: 직접내사 상담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6-7
버거잭 프라자(본사)

● 대표전화: 545-8201

Burger JACK'S.
(주)버거잭 코리아



대학원 후기學位授與式

碩·博士 167명 새회원으로

지난 27일 중강당서 박사21, 석사146명 배출

「87학년도 대학원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7일 오전 11시 모교 중강당에서 열려ばかり 21명, 석사 146명 등 총 1백 67명의 새 동국대학교를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모교李智冠총장과 黃敬恩經濟系이사장, 본회 廉奎(경영대학원동강회장) 부회장을 비롯 교수·학생 및 학부모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대학원 박사학위자 21명과 석사학위자 69명,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자 25명, 경영대학원 석사학위자 21명,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자 31명등에게 학위증을 수여했다.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식사, 이사장고사, 동강회장 축사 등으로 진행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李智冠총장은 식사를 통해 『목적과 수단이 선도되어 가치관이 혼돈되는 오늘날, 졸업생 여러분은 미래사회를짊어진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외면하지 말고 동국의 정신을 드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모교에 도서기증

北加州지부서 원서 78권 보내와

美 샌프란시스코
지부 동강
회(회장=韓陽洙)
66국문·사
진)은 모
교에 기증

할 학술서적 29종, 총 78권의 원서를 본회 사무국으로 보내왔다.
미국지부 순방차 방문한 본회 申益炫 사무국장장관에 기탁해온 이번 기증서에는 「The American Peoples Encyclopedia」 20권을 비롯해 3집의 백과사전과 단행본 전문서적들이 포함돼있다.

南原동우회 조직총

전북 南原市·郡동창회기尹
永昌(67국문·남원여상 교감)

동문을 중심으로 조직중에 있다.
현재 8명의 동문이 주축이 되어 남원시·군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규합하고 있는 「同會」의 연락자는 남원시 노암동730 남원여상이며 전화 2-6162(尹永昌 교감)이다.

본회가 88년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꾸리고 있는 「동국인명록」 제6집 발간작업이 각급단위 동우회 및 동문들의 호응속에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월 이후 「동문신상카드」

연도별 등재 ... 「동문카드」는 계속 접수

이어 黃敬恩經濟系이사장은 고사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면학 정신을 높이 치하하며 겨레와 인류를 위하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 廉在哲회장은 廉奎부회장이 대신한 축사를 통

해 『사랑스런 동국인의 긍지로 사회각분야에서 맑은바 소임을 다해 동국의 명예를 드높여 달라』고 전하고 축상을 축하했다. <박사학위취득자 프로필 9면>



◇ 87학년도 대학원 후기학위수여식이 모교 중강당서 열려 1백 67명의 새 동국인을 배출했다.

救農東友會 정기총회
동원농장에서 열려

救農東友會(회장=尹允暉)는 지난 7일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소재 동원농장에서 88년도 정기총회 및 보신 달회를 열고 친목을 나눴다.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개정과 함께 「구농장화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농정정책회」, 「농민회」, 「이사회」, 「신농회」, 「녹우회」 등 기별로 활동을 활성화해 조직화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柳根昌 지도위원회원이 趙龍在원장에게 축하화환을 전달하고 李智冠총장의 축사를 이어 오찬을 함께하며 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한편 지난 8월 환영회에서는 동반도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故 이기복회장을 둘째로 하산하는 과정에서 허전이 빠져 해발 3천 4백미터 하얀미나산단부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이 사고로 인해 동국산 악회는 30년사상 처음으로 회원을 잊게 됐다.

이번 허종행대원의 사고는 지난 7월 30일 김진성대원과 함께

이기복회장을 등반하던 악천 후로 하산하는 과정에서 허전이 빠져 해발 3천 4백미터 하

얀미나산단부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이 사고로 인해 동국산 악회는 30년사상 처음으로 회원을 잊게 됐다.

이번 허종행대원의 사고는 지난 7월 30일 김진성대원과 함께

이기복회장을 등반하던 악천 후로 하산하는 과정에서 허전이 빠져 해발 3천 4백미터 하

얀미나산단부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이 사고로 인해 동국산 악회는 30년사상 처음으로 회원을 잊게 됐다.

금년으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체육대회에는 「수취인 대구지부」를 비롯해 경주직할동창회, 부산, 포항, 울산, 김천, 산주, 영주, 접수, 문경동창회가 등

과 경주캠퍼스 재직동창회들이 참가해 각종 경기와 여흥을 통

해 친목을 다지게 된다.

부동반으로 실시되는 이번

육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배구, 줄다리기, 공

글리기 등의 게임을 펼치며, 2부 순서에서는 각 동창회별 경기 대회를 가질 예정.

東友漫評

鄭雲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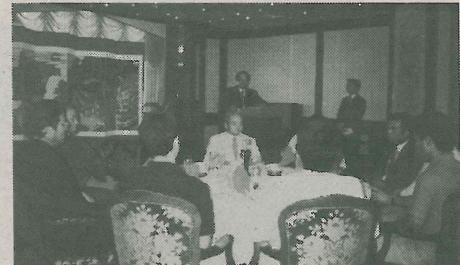
「유럽의 지붕」에 우뚝

빛 각급단위 동우회 회원명부를 중심으로 원고작성 작업에 착수한 본회에서는 1908년 영진학교 졸업생부터 1988년 8월 졸업생까지 8만여 동문들의 현황을 대학·화과·졸업년도별로 기록 정리해 나가고 있다.
또 본회에서는 이번 회송돼온 「동문신상카드」를 중심으로 동문들이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 「東友會報」 발송의 전산화를 비롯 동문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간될 「동국인명록」은 회송정리후 전체 동문을 컴퓨터에 입력, 황후 통계 등 동사항을 신속히 처리할뿐 아니라 양적으로 「방대해진 동문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하는 校勢에 부응함으로써 동문화·동문·교외·본회 간을 있는 결속의 기틀이 되어줄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동문신상카드」를 보낸 동문 및 단위동우회라도 그간 어떤 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첩할수 있도록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동문신상카드」와 「회원명부」를 보내지 않은 동문은 각급단위 東友會에서는 이를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어 「동국인명록」 발간자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본회와 연락이 달지 않는 단



알프스 등반대 환영회 열려

동국 알프스 등반대 환영회가 지난 16일 12시 30분 앤배서더 호텔 스카이 월스홀에서 본회 廉在哲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李智冠교총장을, 趙龍在(72정의) 원장과 安奎燮(82정의) 등반대장 김활기(86산공) 부대장 김진성(전산3) 박영석(체교3) 김현우(무역2) 안진섭(체교2) 대원들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금하고 이를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환영회에는 本會에서 柳根昌 洪淳浩 崔炯佑 李肯珪(제도위원회)과 金聖涉 禹鍾植 安莊 鄭寬弼 宣晉圭 朴俊亨 廉奎부회장이 참석했고 宋在慶(화생처장) 姜國根(산악부 지도교수) 등국산악회의 鄭鎮永회장과 朴秀才(李祖부회장) 등이 사리를 함께했다.

許宗行 대원 영결식

동국 알프스 등반대 故許宗行(건축공학과 4년) 대원의 영결식이 지난 9일 오전 10시 모교 정자원에서 가족친지, 산악회원, 교수와 학생들 1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족과 유럽 알프스 아버지께 끊임없이 통화 등을 격려했다.

安奎燮(78년 대장)의 경과보고, 대원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환영회에서 廉在哲회장은 등반도중 조난을 당한 고 허종행대원의 명복을 빌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에 굽하지 않고 마침내 이어저胥벽 능성에 성공한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지난 80년 마나슬루 등정에 이어 또다시 동국인의 기상과 민족의 기개를 유감없이 발휘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준다」고 말하고 더욱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柳根昌 지도위원회원이 趙龍在원장에게 축하화환을 전달하고 李智冠총장의 축사를 이어 오찬을 함께하며 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한편 지난 8월 환영회에서는 동반도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故 이기복회장을 둘째로 하산하는 과정에서 허전이 빠져 해발 3천 4백미터 하얀미나산단부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이 사고로 인해 동국산 악회는 30년사상 처음으로 회원을 잊게 됐다.

嶺南체육대회 개최

10월 9일 大邱支部주최

영남지역 동문들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온 「영남지구 동문체육대회」가 경북대 구시부(회장=夏水參·58법학·유신무역(주) 대표이사) 주최로 오는 10월 9일 경주캠퍼스에서 열린다.

금년으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체육대회에는 「수취인 대구지부」를 비롯해 경주직할동창회, 부산, 포항, 울산, 김천, 산주, 영주, 접수, 문경동창회가 등

과 경주캠퍼스 재직동창회들이 참가해 각종 경기와 여흥을 통

해 친목을 다지게 된다.

부동반으로 실시되는 이번

육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배구, 줄다리기, 공

글리기 등의 게임을 펼치며, 2부 순서에서는 각 동창회별 경기 대회를 가질 예정.

太白市동문회 창립돼

대학원統計科 총회

대학원 통계학과동문회(회장=鄭在九·경기대교수)는 9월 7일 12시 창립총회를 열고 새로이 발족했다.

태백지역 소재 22명의 동문이 한 회에서 활동해온 회장단과 지역사회에서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동창회발전에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동문회의 초대회장에는 김영환

7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새

로이 밝족했다.

태백지역 소재 22명의 동문이 한 회에서 활동해온 회장단과 지역사회에서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동창회발전에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동문회의 초대회장에는 김영환

7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새

로이 밝족했다.

經大院 19期會총회

金鍾葉회장 선출

경명대학원 19기동기회인 일

구회(회장=樞公雄·권경충정협

외교원장)는총회를 열고 제

3대 회장에 金鍾葉(84년경원·

신일금속(주) 대표이사) 동문을 선임했다.

장학금은 학발전의 基石

[동문장학금을 알아본다② - 學科同窓會獎學金]

후배 재학생들의 학과의 육증진과 교육학문의 질적 발전을 위해 조성된 각종 동문장학금은 선후배간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학과동창회에서 지급하는 동문장학금이다.

학과동창회 장학금은 선후배간에 같은계열은固然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재학생들의 학문장진과 학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모교의 학과동창회 장학금은 지난 70년 경영학과에서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경행과·통계과 등 9개 학과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출금 지급해 오고 있으며 학과동기별 모임인 東經會, 政研會, FODE 동문회 등에서도 후배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제과·농경과 등 대부분의 학과동창회에서 장학기금을 적립중이며, 이미 지금을 하고 있는 동창회에서도 기금을 증식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학과동창회 장학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동창회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과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문과: 지난 10여년 동안 장학기금을 조성해온 국문과 동창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학과 도서실에 1백여만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를 기증한데이어 내년부터는 성적과 우수한 재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학과: 매년 1명의 재학생

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온 수학과동창회에서는 올해 신종업(1년)군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물리과: 학과발전과 후학들의 면학장진 및 학통조성을 위해 매학기 재학생 2명에게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화학과: 매년 가장 많은 재학

점외과: 계속적으로 장학기금을 증식해온 경의동창회에서는 연세 매학기 4명의 약부생과 2명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유학 학생에게도 학업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政研會에서도 지난 82년부터 매학

기 1명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



후배 재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과동창회
장학금
전달식

각 학과마다 기금적립 한창 후배들의 學問精進에 기여

생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과와 동창회에서는 지난학기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6명, 학부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후배들에게 격려했다.

통계과: 기금 1천여만원을 적립하고 지난 85년부터 매년 2명씩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고 있다. 경행과: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성적이 우수하고 기사가 곤란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경행과동창회에서는 올해 김유신 군등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경영과: 지난 70년 경영학과 2기 졸업생들이 장학기금을 만들어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어 지난 78년부터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벌여온 경영학과동창회에서는 그동안 60여명에 이르는 재학생 후배들에게 장학혜택을 주었다.

앞으로도 계속 기금증식을 통해 수혜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영과: 연영과 동창회에서는 매년 4학년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일에 충실히 1명을 선정해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 金光奎 (78학과·법사과) ▲ 金洛天 (81학과·교과교사과) ▲ 韓桂根 (52국문·분회지도위원) ▲ 鄭慶煥 (69농학·부회이사) ▲ 林漢福 (87학과·주) ▲ 鄭信淳 (78학과) ▲ 安奎寧 (82전공 청소년신문) ▲ 金基寧 (77전공·주) ▲ 金熙宗 (78경영·주) ▲ 申基寧 (60경영·한국계화인증공업학원부원) ▲ 朴漢福 (60경영·증권동산) ▲ 李昌昊 (70행정·기민호텔원) ▲ 李昌昊 (70행정·기민호텔원)

本會來訪

▲ 金光奎 (78학과·법사과) ▲ 金洛天 (81학과·교과교사과) ▲ 韓桂根 (52국문·분회지도위원) ▲ 鄭慶煥 (69농학·부회이사) ▲ 林漢福 (87학과·주) ▲ 鄭信淳 (78학과) ▲ 安奎寧 (82전공 청소년신문) ▲ 金基寧 (77전공·주) ▲ 金熙宗 (78경영·주) ▲ 申基寧 (60경영·한국계화인증공업학원부원) ▲ 朴漢福 (60경영·증권동산) ▲ 李昌昊 (70행정·기민호텔원) ▲ 李昌昊 (70행정·기민호텔원)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セヒ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경영)

서울·중구 총무로 4 가 125-1
진양빌딩 3 층 42호

支部消息

뉴욕支部 定總 개최

새회장에 유영수 동문

뉴욕지부 (회장=전영섭)

는 지난 6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개편을 통해 회장은 유영수(60영문)동문, 수석부회장은 차규민(64정치)자석부회장은 김성진(63학과)동문, 이사장은 그레이스강(58국문)동문, 부이사장은 안영수(59영문)동문, 총무로 김천수(80토목)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진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의사10人을 선임키로 결의했다.

활성화에 뜻모아

워싱턴 지부

동창회는 지난 6월 29일 모임을 갖고 그간 동문조직이 소원했던 것을 개선하고 동창회를 재건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同會의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서영해(62정치)동문을 회장으로 재추대,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해외회장단 모임 협의

디트로이트支部

트리보이(65영문)동창회(회장=김원규)는 지난 6월 30일 이태근, 양찬수, 최병식, 혜영식, 임돈, 박병수, 김문화 등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신익희 사무국장 환경부모임을 갖고 해외부회장단 모임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同會는 매달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갖는등 동문사회·친목도모로 힘써오고 있다.

1명식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同會임원에는 부회장에 오영환 이수웅동문, 총무에 김용준동문 부총무에 박영규(84정외)동문들이 있다.

현관전달식 가져

샌프란시스코支部

시스코(65영문)동창회(회장=한양수)는 김용백교문을 비롯, 김의중, 이석우, 송수남, 오재근, 하현준, 정문구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기 기증한 현관전달식을 가졌다.

또 同會는 4년째 열고 있는 총장배 동문교류대회 아한께 모교 후배에게 매년 1명식 장학금을 지급도록 뜻을 모았다.

총장배 골프대회 가져

시카고支部

시카고 지부(65영문)동창회(회장=이경희)는 지난 7월 10일 김영택동문이 경영학과(나합홍집)에서 이경희회장을 비롯 윤동도, 강대한, 남태희, 이성남, 정대환 동문들 20여명이 모여 동창회를 열고 모교장학금 1명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同會는 이날 오전에 총장배 동문골프대회를 갖고 친목을 다졌다.

보스톤·시애를 同門會 활동

이외에도 현재 호주를 비롯해 브리즈번과 시애를 둘러싸고 각 동문회가 조직되어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각 동문회에서는 본회로 입원및회원명단을 보내어 상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미주지부에서는 교과 및 응원차, 교정모습 등을 비디오에 담아 각支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뉴욕지부에서는 모교 및 동창회의 발전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준비 중에 있는 데 이세미나의 준비위원회에서는 재규민동문이, 부위원장 장에는 박성관동문이 일자리를 추진 중이다.

최경선 최여형 박철규 박종범 박우중, 김수복, 김수희 최동수 오영환 이민희 김기성 김장선 정찬운(스페지자문회) 김종한(〃총무) 등동문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또 경기 김포군 김포면 흥정면에서는 재규민동문이 부위원장 장에는 박성관동문이 일자리를 추진 중이다.

한편 미주지부에서는 교과 및 응원차, 교정모습 등을 비디오에 담아 각支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기 김포군 김포면 흥정면에서는 재규민동문이 부위원장 장에는 박성관동문이 일자리를 추진 중이다.

추석맞이 선물용 송이버섯



신속 배달

송이버섯 전국총판

☎ 778-8146

서울상회 代表朴大赫 (63생물)

이글은 지난달 美洲6개지부를 방문하고 극복한 본회신의원 사무국장의 여행기입니다. L.A.-샌프란시스코-뉴욕-워싱턴-디트로이트-시카고등 미국 각지부同密會 동문들의 근황과 활동내용 등을 두차례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註>

가는곳마다 韓東友交…동문애 만발

申益炫 사무국장 美洲순방기

두번째 미국행

父親의 병문안경 미주동창회 지부의 근황을 돌아보라는 회장님의 특별휴가를 제기받아 두 번째 미주방문 길을 열었다. 살랑꿀 백순석사장님의 배려로 2등석(비지니스 클래스)에 자리잡아 편안하게 짐을 풀고 우선 화장실을 찾았다. 용변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에어컨 앞자리에 시달리기보다는 옷을 꺼입자는 계산에서였다. 화장실에서 거울내복을 꺼입고 상의는

나는 서울을립피과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흥보를 하며 고국을 떠나면 이국자가 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웬말인가? 하현준 동문이여
[의리의 톨쇠]로 통하는 최둔규 (72도공)동문은 예의 범강과 같은 체격으로 샌프란시스코공항에 마중을 나와주었다.
[현준이영 소식 들었어?]
[아니! 왜?]
[지금 말이 아니야. 거기부

샌프란시스코 동문회의 전회장 김용백동문의 따뜻함이, 한양수 회장님의 너그러운 웃음이, 글프 광 손수남 동문의 글프광답게 벌에 그을은 까만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하현준 동문의 쾌유를, 누군가가 그를 뱤리 도와(?)주기를 기도드린며 의사에 기대누워 눈을 감았다.
하현준(71일화)동문 연락처 : Hyun Joon HA 889 KENYON AVE SAN LEANDRO, CA, 94577 전화 : (415)351-5865



동문들의 歡待 속에 北加州지부 방문

투병중인 河賢俊동문… 얼싸안고 눈물

순모자켓을 덧입어 보온상태로 둘입한후 12시간의 지리학과 냉기와 싸우던 끝에 LA공항에 당한다.

비행기 안에서는 고려원 김사장님께서 주신 「8개국 동시 회화」를 열심히 뛰어거려 여행의 첫관문인 통관(세관) 절차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계다가 한영사전까지 뛰어거려며 세심한 준비를 했지만 미국 세관원들은 우리 한국인의 중요한 선물 내용을 거의 한국말로 알고 있었다.

「오우! 될팡!」「이거 코치 칭!」

L.A에 사는 사촌여동생에 전해줄 된장과 고추장 때문에 무진 고생하고 위워놓았던 영어 실력이 고스란히 힘풀기 품이 되고 말았지만 무사히 통관이 되어 알맞게 따스한 로스엔젤리스에 첫발을 딛게 되었다.

마지 몇 달에서 음탕에 뜰을 닦고 눈이 짙을 때와 같은 페각자 들판으로 따뜻한 기운이 피로한 몸을 감싸주었다.

L.A시내로 들어가는 택시에서 6.25 참전용사였던 흑인 운전사를 만났다. 그는 서울과 월립피에 관해 관심을 보였고

더 들려보자구!

3년전 방문했을 때 동문회 회장을 맡아 수고해주셨던 하현준(71일화)동문의 첫소식을 듣고 놀랄을 금치 못했다.

2년전 까지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종합진단을 해본 결과 심장이 좋지 않아서 1년동안 네 번이나 대수술을 하는 기적적이고 초인적인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6개월의 시한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같은 사고로 사망한 다른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면 새로운 삶을 계속할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속에 누군가가 심장이식을 해주기를 기다리는順番者(병원에서 심장이 순서를 지정해주었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

2년간이나 접박 구경조차 않던 강동문은 나를 만나자 엄격 물이어렸다. 그리고는 샌프란시스코동문회의 저녁모임에

도 섭섭하고 최문규동문집에 서 하루를 묵으니 모교소식, 동문소식, 고국소식에 병마에 수척했던 그의 얼굴과 눈빛이 한 해지기 시작했다.

비행기 날개 아래로 보이는 금문교에 걸쳐져가는 노을속에

<금번 미국방문을 위해 모든 경비를 부담해주시던 고려원에 감사드리며 도움을 주신 정재월회장님과 여러 선후배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동문골프대회의 충장배를 전달한뒤 샌프란시스코 동문과함께<사진권>. 투병중인 하현준동문(중장)과 최준 규동문과함께 3년만에 만나 기념촬영한申正국.

회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 긴요(단위 : 만원)

◇회장단분담금	▲이철우(86신간)=''	▲고안언(63경영)=''	▲이학규(57경제)=''
▲조 규(77경원)=50	▲서상철외 1人 (80평)	▲김익배(86법학)=''	▲성석도(82경영)=''
◇常務理事會費	경)=2	▲윤기봉(86법학)=''	▲이종갑(63법학)=''
▲정달영(58경제)=20	▲조희범(86경영)=1	▲김정의(67경영)=''	▲이근양(52정치)=''
▲이능희(65상학)=''	▲이동주(63법학)=''	▲김광수(82철학)=''	▲오희족(86지교)=''
◇理事會費	▲김종남(86신간)=''	▲이정곤(58법학)=3	▲최윤시(47문화)=''
▲고문선(52경제)=5	▲김용삼(61경제)=''	▲성구인(64국문)=1	▲송연재(61경제)=''
▲이정로(62경제)=''	▲박경관(85영문)=''	▲김명진(78공경)=''	▲윤광봉(73국문)=''
▲박익주(61정치)=''	▲윤성권(67국문)=''	▲강병운(62법학)=''	▲고광규(61불리)=''
▲길 육(72행원)=''	▲김미경(83수학)=''	▲이동주(68경영)=''	▲조증문(67상학)=''
▲전윤구(77영문)=''	▲최영훈(61정치)=''	▲이기홍(67불학)=''	▲박근수(64해경)=''
▲우기원(81경원)=''	▲이종호(63경제)=''	▲박민호(62법학)=2	▲조지주(66법제)=''
▲임천준(54국문)=''	▲이창십(67상학)=''	▲최우호(69경영)=1	▲이제일(87경영)=''
▲오진모(61법학)=''	▲박신권(64상학)=''	▲김용득(77국문)=''	▲김영래(86경영)=''
▲오홍령(66농학)=''	▲이언호(64경영)=''	▲조원호(79행원)=''	▲이병식(82경원)=''
▲고광덕(65경제)=''	▲이용조(72농학)=''	▲홍성규(48불교)=2	▲조길운(81경쟁)=''
▲이광우(66불교)=''	▲김진호(76전자)=''	▲신동현(73법학)=1	▲유관희(68유생)=''
▲한경운(65정의)=''	▲안춘태(71법학)=''	▲김진순(64법학)=''	▲김영수(62법제)=''
▲유국협(64상학)=''	▲신지현(65행정)=''	▲김정덕(76행정)=''	▲이승호(63경제)=''
▲김대웅(67경제)=''	▲박시원(64경제)=''	▲김정수(경원15)=3	▲최부남(74경행)=''
▲김남주(60경제)=''	▲조동휘(79원화)=''	▲곽종현(70상학)=1	40
▲김윤종(73정치)=''	▲조희철(58경제)=''	▲한경숙(62영문)=''	▲김경식(73행정)=''
▲윤우득(63생물)=''	▲이상호(64국문)=2	▲김성관(67상학)=''	40
▲신현조(84교원)=''	▲정승호(51정치)=''	▲김정집(67상학)=''	▲최태근(74통계)=''
▲홍치유(63물리)=''	▲정재달(경영)=''	▲정종호(78영업)=''	20
◇年會費	▲이연수(70시공)=1	▲이승우(56국문)=''	▲조총국(84사개)=1
▲이필영(71사학)=1	▲안연학(58경제)=1	▲김원봉()=''	▲김성진(69경행)=2
▲이종호(66상학)=''	▲이상호(66법학)=''	▲유덕희(86경영)=''	▲정관식(82경식)=''
▲이재덕(90국문)=''	▲반성곤(72영문)=''	▲문창모(63사학)=''	◇團體會費
▲비례술(64경제)=''	▲우수성(경원)=''	▲이백수(70경제)=2	▲산림청동우회(회장 : 황의현)=7
▲조재근(84교원)=''	▲임세영(56경제)=''	▲정언월(86토공)=''	▲전보지부(회장 : 김삼룡)=10
▲한용희(85경영)=''	▲조성빈(62사학)=''	▲차임철(60법학)=1	▲태백시동문회(회장 : 김영환)=10
▲문화회(61경제)=''	▲하경호(67법학)=2	▲장형팔(64화학)=''	▲온레지키우동문회(회장 : 정진준)=8
▲변무일(66영업)=2	▲안명관(81통계)=1	▲원효호(68경제)=''	100
▲정세봉(76일화)=1	▲조진곤(62법학)=''	▲신현식(85승침)=''	◇광고료
▲이희천(65사학)=''	▲황명준(81경원)=''	▲박상용(64국문)=''	▲방대혁(82경정)=''
▲정종렬(86경원)=''	▲이덕현(72불교)=3	▲방대혁(81행정)=''	▲동우회 보광고료=14
▲최성호(86미술)=''	▲이대혁(53법학)=1	▲최교운(83행원)=''	4
3,000	▲이성상(76부여)=''	▲안효호(66농학)=''	▲회관설립基金
▲조영식(74행정)=1	▲이상운(52경제)=''	▲이재희(61정치)=''	▲이상식(54경제)=20
	▲오신온(51총회)=''		

秋夕선물용 健康食品 신속배달

驚異의藥草 靈芝버섯

强精壯壯의 人 蔘

滋養強壯의 佛 곁

自然食品의 표고버섯

기타人蔘 · 靈芝 кап슐등 자사한것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中原農產 代表 鄭 福 濟(60·정치)

사무소 : 서울 중구 필동431-1 동화B/D612호

전화 267-5111~2

농장 :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무촌리

전화 (033)32-5884

서울投資金融 事業취임

許文秀 東文

許文秀(57)
 경제·本會事
 例) 동문은지
 날 13일 서
 을 브자금융
 정기·주총에
 서 대표이사
 社長에 선출됐다.

한국산업은행 상무이사로 활
 악해온 許文秀는 오랜동안, 통
 행에 브로우에서 서교동·신길
 동·남부지점장을 거쳐理事,
 상무이사를 역임한 정통금융인
 이다.

상업은행 재직시 東友會 회
 장을 맡았고 本會감사로서 활
 동해 오고 있다.

서예전문지「書通」북간

金膺顯 東文

서예가 如
 初 金膺顯
(48전문·東
 方研書會 회
 長) 동문은으
 는 9월부터
 8년간이나

발행이 중단되었던 서예 연구
 전분지「書通」을 복간, 4월간
 으로 발행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예가로
 손꼽히는 金膺顯은 또 지난 5
 일 가칭「국제서예술연합」 결
 성대회에 참석자 말레이시아 콜
 라루프를 방문하기로 했다.

學術院회장 취임

徐燉玗 전총장

徐燉玗 前
 모교 총장은
 지난 18일 열린
 학술원 제 56
 차 임시총회
 에서 22대학
 술원 회장에

피선됐다.
임기 2년의 학술원회장에 취임
 한徐燉玗은 지난 72년 5월부터
 74년 7월까지 모교 총장으로 재직
 한바 있으며, 범법학·사회철학
 한국학회장을 비롯, 詮虛불교문
 화 재단이사장등으로 활동중이다.

慶州에 도서기증

黃壽永 전총장

黃壽永 전교총장은 지난 달
 20일 모교 경주캠퍼스도서관에
 고고미술사 판제서적 1책 71권
 을 기증했다.

黃壽永총장은 지난 85년에도 7
 뼈구위의 학술서적을 기증한 바
 있는데 도서기증으로 모교생들의
 논의학과 연구활동에 많은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필집「꽃이 피고…」

鄭泰英 東文

鄭泰英(49문화·문화박사) 동
 문은 최근 수필집「꽃이 피고
 보이는 사이에」(한샘편)를 펴
 냈다.

경기 대학교원장으로 재
 임중인 鄭泰英은 日통경대 교
 환교수, 석성여대, 서울여대, 경
 기대 학생처장 및 도서관장등
 을 역임했고 저서에는 「수필문
 학론」「문화개론」「현대한국문화
 사개론」등이 있다.

母校서 강연회 가져

高遠 東文

在美문인 高遠(49문화·미주
 한국문인협회장) 등문이 지난 26
 일 도교동국판에서 열린 모교

한국문화연구소주최 초청강연회
 에서 「민족문화의 반란」이라는
 주제강연을 했다.

高遠은 이날 강연회를 통
 해 「민족문화의 무엇인가?」의 규
 정방법으로 △정신사색적인 면
 에서 불의에 대한 저항·자주
 성수호 △사상적인 면에서一心
 사상·조화사상·통일사상등 민
족정서로서의 혁신에 기여된 원
 의 정서를 제시했다.

美에 침구대학 설립차

金三龍 東文

金三龍(56 불교·원광대학교
 총장) 등문은 지난 4월 美 로
 스앤젤레스에 침구대학 및 교학
 대학分校를 설립하는 문제를
 험의회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
 다.

지난 86년 12월 원광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金三龍은 同大
 교무처장, 의료원장, 부총장
 등을 지냈고 84년에 일본 쓰
 구바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전북지부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詩集 2권 同時출간

李哲範 東文

李哲範(50전문·시인) 등문은
 시집 「구두속에 간한 맨발의 보
 시」과 「의제계도에 찍힌 흥」
(총서소작기)을 동시에 출간
 했다.

문학평론가로 활동중인 李
 동문은 지난 81년 渡美, 캘리포
 니아대학에 입학한 후 미국문
 단에 데뷔한바 있다. 李동문은
 약 20년간 경향신문·서울신문·
 신문위원회를 지냈고 모교와 이
 학교에서 현대문학을 강의하
 기도 했다.

平民黨 총재 특보에

權魯甲 東文

權魯甲(58
 경제·국회의
 원·本會副
 회장) 등문은
 최근 平民黨
 총재 특별보
 촉역(총무당
 당)에 임명됐다.

총재비서실장과 정치담당특별
 보좌역 등으로 활약해온 權魯甲
 은 3차금으로 목포에서 출
 해 13대 의원에 당선, 국방위
 위원 간사로 활동중이다.

布教師團長 취임

宣圭圭 東文

宣圭圭(59불
 교·본회 상
 입부회장) 등
 문은 지난 7
 일 대한불교
 조계종 護法
 布教師團長
 聰총회에서 초대
 단장에 선출
 됐다.

조계종 중앙 상임포교사로 활

동중인 宣圭圭는 대한불교청년
 회 10·11·15대회장을 비롯해
 同이사장들을 지냈고, 모교 강
 사로도 출강하는 능률교법선을
 사단은 불교외호와 포교활동,
 자료교환등을 목적으로 발족된
 재가포교사들의 단체이다.

「역세풀의 땅」펴내

浪承萬 東文

浪承萬(60
 국문·시인)
 등문은 최근
 일곱번째 시
 집 「역세풀의
 땅」(문화사
 상기)을 펴
 냈다.

지난 80년 뇌출증으로 쓰러진
 후 8년째 투병생활을 해오면
 서도 의욕적인 시작활동을 펼
 쳐온 道동문은 투병기간을 통해
 다섯번째의 시집을 출판해
 내는 경지를 보여 문단의 화
 제가 되고있다.

浪동문은 지난 60년 「현대문학」

으로 등단한뒤 제 3회한민국

문학상과 제 2회 인천시문화상등
 을 수상한바 있고 시집 「사계의
 노래」 「북녘바람의 귀순」
 「雨祭」 등을 펴낸바 있다.

상업銀 신설 등지 짐장

盧萬植 東文

盧萬植(60
 경제·본회이
 사) 등문은지
 날 13일자로
 한국상업은
 행화양동지
 짐장에서 신
 설동지 짐장으로 전임했다.

상업은행 東友會 회장을 맡고
 있는 道동문은 현재 본회 이
 사료로 활동중이다.

國際法協 평생부회장

林德圭 東文

林德圭(60
 법학·11대의원·
 본회이사) 등문은 지난 21일부
 터 2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
 에서 열린 세계국제법협회 제
 63차총회에서 평생부회장으로 추
 대됐다.

동협회 세계회장을 역임한 林
 동문은 영문 월간의지인 「디
 플로머시」誌회장으로 활동중이
며 모교 및 서강대 강사, 신아일
보, 동화통신은 위원장을 역임
하고 지난 85년에 대북문화대학
 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은
 바있다.

法學博士 학위 취득

吳鎮模 東文

吳鎮模(61
 법학·국가부
 립연구원 수
 서연구원·본
 회이사) 등문
 은 지난 19일
 청주대 대학
 원 후기학위수여식에서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

최고 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 P 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 · 1,000만원 이상 만기 · 90일 이상

특수화재 투자·부동산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내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 표 771-06



를 취득했다.

모교 경영대학원 및 경희대학
 정대학원 강사로 출강중인 吳
 풍문은 국토개발연구원 東友會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대한
 부동산학회 회장, 한국중소주택
 사업자협회 자문위원장을 등으로
 활동중이다.

생각하며 사는길 出刊

朴完一 東文

朴完一(61불교·대한불교조계
 종·전국도회장·本會부회장)
 등문은 최근 수단집 「생각하며
 사는길」(내장기획)을 출간
 했다.

월간 「法輪」발행인이기도 한
朴完一是 이 저서에서 불교계
 와 사회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적극하고 참된 삶의길을 제시
 하고 있다.

관광공사 교육원장

鄭溶 東文

鄭溶(61정치·
 본회이사) 등문은 최근
 한국관광공사 경주관광교육원에

陶庵紀念館 준공

池洙龜 東文

池洙龜(63
 경제·池順卿
 繫대표·본회
 이사) 등문은
 경기도 이천
 군 신둔면수
 광리소재 도
 오에 陶庵紀念館을 신축하고
 9월 10일 준공식을 갖는다.

서울을 페 공식 도자기업체
 지정된 陶順卿은 이번기
 년 관 종곡으로 유물관과 전시
 실·작업실 등을 포함해 대단위
 도요단지를 구성해 전통도예의
 현장을 일록요연하게 볼수
 있다.

조홍 銀 남대문지점장

陳宗龜 東文

陳宗龜(63경제·
 본회이사) 등
 문은 최근
 朝鮮은행 종료지점장에서
 남대문지점장으로 전임했다.

陳동문은 전국금융노조위원
 바있도록 본
 주인의
 업체로 諸
 소식이나
 报告이 주



서 관광교육원 원장으로 영전
 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5 한국관광공사.

특수강 공장 건설중

李在熙 東文

李在熙(61
 정치·대법특
 수강(株) 대
 표이사) 등문
 은 지난 8월
부터 인천남
 동공단에 특
 수강 생산공장을
 건설중에 있
 다.

다년간 신소재 철강개발에
 관 연구를 거쳐 특수강생산 공
장을 신축하고 있는 李동문은
 이 공장의 준공으로 연간 약
 3백억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
 를 거두게 된다.

橫城署 보안과장

鄭辰澈 東文

鄭辰澈(63
 국문·경감) 등문은
 강원도 횡성경찰서 경비과에서
 보안과장으로 영전
 밝혔다.

東部지청 서무과장

李正圭 東文

李正圭(63법학·서기관) 등문
 은 9월 1일자로 법무부 인사에
 서 서울지검 동부지청 서무과
 장으로 임명했다.

법조계에서 20여년간 둘째아
 문 李동문은 대檢수사관, 인천
 지검 수사과장, 광주고검장 사건
 과장, 원주지청 사무과장등을 역
 임했다.

朴동문은 현재 중소기업은행
 東友會으로 활동하며 본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現代公認仲介士 合同事務所
 公認仲介士 金炯敏 (75경행)

가장 안전하고
 높은수익

上地투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9 광정빌딩 304호
 대표 549-8266, 549-8264-7, 546-2882

알프스에 떨친 東國人의 氣概



▲아이거 등정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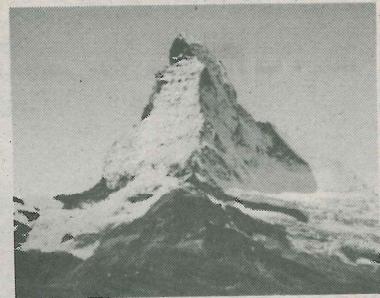
▲빙벽 등반



▲정상향한 진군



▲베이스캠프에 함께선 대원들



▲아이거 전경



▲ 알프스 등정 회장에게 전달하는 표창
우리의 표창으로서 표창을 전합니다
[1988년 8월]

동국산악회 알프스 등정기

『왜 가야만하나?』
모 가수의 노래가 들리고 있다.

3년의 지장 생활중 휴가비를 하루도 쓰지 않고 모은 그 대원, 산에 기기 위해 취업을 보류하고 있는 O대원, 비행기 탑승전까지 세금 계산을 하고 있던 대원원.

왜 가야만하나?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다.

재학생들... 과중한 비용은 둘째치고 집안 어르신네들이 만족해하지는 않으셨을거다.

산이 무었이기에. 그러나 선구적인 산악운동을 해온 나라들은 지금 선진국이다. 젊은 이들의 진취적인 기상이 없는 나라는 발전이 더뎌질 것이다.

7월 16일 드디어 출국.
이날을 위해 우리는 기나 긴 훈련을 해 왔고 개인적인 희생도 감수해왔다.

꼭 해야만 한다.

주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

30여 시간의 여행 끝에 사모니에 베이스 캠프를 찾았다.
여기 등산 운동의 일심진자로 전례의 조건을 갖춘 도시였다. 높은 산, 하얀 눈, 바위·바위·바위..... 매우 크고 뾰족한 봉우리를.

그것을 오르기 위해 선구자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열악한 장비, 부족한 정보... 오직 산을 환한 정열뿐.

우리들은 지금 행복하다.
그들 앞에 머리숙여 높은 뜻을 기린다.

7월 19일, 처음 대하는 유럽 지역의 산에 적응하기 위해 일주일간 훈련에 들어간다. 우리 모두가 정상에 오를 수는 없을것이다.

하지만 능력을 모두 강추해

아겠지. 피곤하고 힘든 산책이었지만 모두들 열심이었다. 역시 동악의 힘은 집중력에 있었다.

7월 23일, 훈련의 끝날이 등대원의 생일. 매년 밤학증 산행의 연속이라 요즘엔 생일상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했단다. 그래 산이 무었이기에, 하루 만 오늘은 선후배 모두 축하해 주마. 모두 믿고 따르며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 보자.

7월 25일 적응 훈련이 끝나고 클라이미ング 세이시옹으로 이동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있는 곳이다. 이동시 외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아! 신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제 날씨도 주기적 인동

다. 아니 전혀 없다.

왜 그렇까? 전날 밤 날씨도 나쁘고, 불안한 마음, 불길한 생각, 마음이 답답했다.

안돼지, 그러면 안돼지. 우리는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여겨서 꺾일 수는 없다. 그래 힘들내라.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산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다. 아이거 등정 50주년의 해에, 산악부 창립 30주년 기념의 등반에 우리가 회생의 주인공이 되더니, 너무도 믿어지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그 유능하고 훌륭한 후배들을 봐다니... 쟁쟁(활) 무진, 독사같던 그 놈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아! 신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제 날씨도 주기적 인동

려운 문제이다. 모두 같은 조건이라면 후배를 키우자 1차 예보단 모든 것이 순조롭다. 감으로도 성공할 것 같다.

8월 6일 드디어 정상
정상이라는 무전기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하다. 수고했다.

회생은 있었더라도 우리는 해냈다. 산은 계속 거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점으니 산행은 계속될 것이다. 6대주의 최고봉을 모두 오를 것이다.

오늘의 이것이 그 토대가 될 것이다. 누구도 회생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회생이 있더라도 그에 걸어서는 않된다. 계속가야만 한다.

이번 등반을 위해서 도와주신 주위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장님과 회장님, 학생회장님의 격려



故 허 종 행 대 원

박 영 석 대 원

김 진 성 대 원

김 현 우 대 원

안 진 섭 대 원

동료잃은 슬픔딛고 재도전 성공

『頂上정복, 무전기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해』

좋았다. 좋은 날씨를 놓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조급함도 있지만 여유를 가지자.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하는 길일 것이다.

이틀의 휴식 후 공격을 시작했다. 북벽으로 2명, 서등으로 3명, 그러나 아이거는 우리를 순차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비바람이 몰아친다. 역시 아이거는 만만히 볼 곳이 아니었다. 1차 공격은 철수. 철수 후 일기 예보를 청취하니 2~3일 날씨가 좋단다. 같은 계획으로 재시도를 했다.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했지만 컨디션은 좋았다. 절묘고 잘싸고....

그러나 누가 생각했으랴? 단 의하나 그 경우가 닥치고 말았으니 너무 자신이 앞섰었는가.

7월 30일, 교신이 너무 늦는

약전후를 보여 주고 있다. 아직 우리는 산을 잘 모른다. 정녕 후퇴해야 되는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전부 끌어가지 못하더라도 해야한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 고두의 명예를 위해....

8월 5일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2차 공격을 시도한다.

누구를 둘릴지인가. 너무도 어

가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끝하지 않게 한대원의 회생이 있었으나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합심 노력하여 동국인의 기상을 세계 도처에 펼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반대장 安奎燮

趙龍在
<72정외·대장>

安奎燮
<82건공·등반대장>

金煥起
<86산공·부대장>

仁海廣場

오는 10월 완공된다

공사비 1억 6천만원…5千名 수용

그동안 전東國人의 업원이었던 「만해광장」이 지난 8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해 오는 10월 10일 완공될 예정이다.

민족의 선각자이며 東國의 정신적 지주이다. 본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仁海 韓龍雲선사의 詩碑가 지난해 모교 르비니동산에 세워진데 이어 이번 만해광장의 건립으로 東國精神을 계승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캠퍼스가 협소해 각종 행사로 치루기가 어려

만해광장

있던 모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사는 한창 진행중에 있는 만해광장은 총공사비 1억 6천 5백만원으로 본관앞 농구장과 테니스장 부지 1천 1백 85평의 면적에 22.5단의 스탠드를 설치하게 되며 수용인원은 약 5천 명정도이다.

이번 만해광장의 건립에 따라 현재의 동우당은 제 산고시 학사 앞 동산으로 이동 배치하며 테니스장은舊 학군단 건물옆의 부지에 새로 마련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만해광장에서의 소음으로現제 산고시 학사의 위치가 적당하지 못한다는 지침에 따라 고시 학사의 이전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만해광장의 기공식은 지난 11일 오후 1시 李智根총장, 최재성 총학생회장 등 1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교수총회장에 吳國根 교수

교교 전체 교수회의 출회장에 吳國根(영문과) 교수가 선출되었다.

지난 8월 20·21일 양일간 서울·경주 양캠퍼스의 교수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8년도 제 2회 전체 교수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 吳國根(영문과) 교수가 결합표 1백 62대 31표로 吴國根 교수가 출회장에 선출되었다.

학생들 「休校令下지」 결의

학원자주권수호투쟁의 완수 및 윤리피고 관련된 휴교령의 저지를 위한 학생총회가 8월 31일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이날 학생들은 학원자주를 험탈하는 휴교령을 폐지할 것을 의결했으며, 전체 교수회의에서 학자투합의 사항을 내용상 거부한 회칙이 통과된 점과 吴國根 교수가 출회장에 선출된 데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서도회 「東國書藝展」 개최

교교 서도회에서는 창립 10주년 기념 「東國書藝展」을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크리스탈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대학소식」 여름호 발행

교교 공보실에서는 고교생들을 위한 일시홍보지 「대학소식」 여름호를 지난 7월 31일자로 발행했다.

이번 여름호에는 「수험생 건강관리」「동문방방」「학계의 전통」 등이 실려있다.

직원노조 「東國勞報」 발간

교교 직원노동조합(위원장 =宣相圭·행정대학원 교학주임)에서 「東國勞報」 제 1호를 지난 8월 1일자로 발간했다. 지난 7월 2일 창립된 직원노조의 청기집인원은 총 1백 2명으로 9월 중순경 노동부에서 정식인가를 받는 대로 단체협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東大新聞 지령 1千號 맞아

지난 1950년 4월 15일 창간된 東大新聞(주간=林美正, 편집장=盧建煥)이 오는 9월 13일로써 지역 1천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창간 이래 38년동안 正論直筆이라는 투철한 인식으로 대학문화의 창달과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東大新聞은 그 동안 교회의 건학이념계승과 학술진흥,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해왔다.

주간 대판 8면으로 벌행되는 東大新聞은 여타 대학신문의 모범으로 그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지시작

으로 동대신문학술상, 전국교문학공쿠르, 학생논문상, 동대 문학상 등을 개최하고 논설집 「대학의 시상」 과학술상상상작품집 「대학의 시상」 등을 간행했다.

한국사회의 질곡에서 시

지난 38년동안 大學文化창달에 기여
칼럼선집 발간등 각종기념사업 계획

대의 소금역할을 해온 東大新聞은 이번 지령 1천호를 계기로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서 지난날 맑은바 소명에 충실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동국발전과 조국의 지주희, 민주주의의 일주



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념사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대학신문 전시회(9월 12~15일예정)

▲서울캠퍼스 제 5회 보도사진전(9월 12~15일예정)

▲경주캠퍼스 보도사진전(12월 20~25일예정)

▲고교신문·교지전시회(9월 12~15일예정)

1987학년도 後期大學院

博士學位 취득자 프로필

◇ 金英吉(哲학박사)=「南岳慧思의末法思想에 관한 연구」▲42년 경남을주生▲67년 마산대학 종교학과卒▲69년 모교 대학원卒▲모교 인문대교부교수▲모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 李萬(哲학박사)=「신라 태현의 成唯識論에 관한 연구」- 資料의 연구를 중심으로 ▲47년 전북부산生▲74년 모교 불교학과卒▲76년 모교 대학원卒▲모교 인문대 전임강사

◇ 姜文善(哲학박사)=「北宋神秀의 禪思想研究」▲52년 서울生▲74년 교부교과卒▲76년 모교 대학원卒▲모교 대학원卒▲모교 불교학과교수

◇ 李尚鎬(문화박사)=「韓國現代詩에 나타난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 李相和과 尹東柱의 시를 중심으로 ▲54년 경북 상주生▲80년 현양대 국문과卒▲82년 동대원卒▲한양대 강사 ▲고교 문과강사

◇ 金英東(문화박사)=「燕巖朴潤源의 소설연구」- 虎山과 莫言의

중심으로 ▲47년 서울生 ▲71년 모교 국문과卒▲77년 모교 대학원卒▲청주대 강사 ▲모교 인문대 조교수

◇ 李鍾日(문화박사)=「朝鮮時代庶民身分變動史 연구」▲34년 대구生▲61년 서울대 법학과卒▲대검찰청 판리관▲84년 모교 교육대학원卒▲86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 朴翼煥(문화박사)=「朝鮮前期鄉村敎化史研究」▲42년 서울生▲72년 중앙대 철학과卒▲78년 서울대 대학원卒▲문교부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

◇ 鄭炳朝(문화박사)=「文殊菩薩의 研究」▲47년 경북여주生 ▲71년 모교 인도철학과卒▲73년 영남대 대학원卒▲모교 국립민족학과 부교수 ▲한국 종교학회 감사

◇ 安晋晉(문화박사)=「奇蘆沙의 理哲學에 관한 연구」- 一理一分殊의 철학체계를 중심으로 ▲31년 전남보성生▲57년 전남대 철학과卒▲61년 모교 대학원卒▲심보회학간사 ▲전남대 조교수

◇ 袁慶允(정치학박사)=「日本國會의 北韓論議에 관한 조사연구」- 1970~85년 종의원외무위원회 토론회 내용 중심으로 ▲45년 서울生▲67년 모교 행정학과卒▲73년 모교 행정대학원卒▲국토통일원 정책자문위원▲모교 경주캠퍼스 부교수

◇ 金江寧(정치학박사)=「核擴散이 國際平和秩序에 미치는 影響」▲54년 전북 정성生▲77년 모교 정치외교학과卒▲79년 모교 대학원卒▲모교 법정연구소조교▲모교 정외교과교사

◇ 尹宗赫(경영학박사)=「韓國上場企業價值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40년 충남에산生▲65년 서울대 산학과卒

◇ 韓圭甲(경제학박사)=「프론티어생산함수에 의한 기술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33년 경기生▲80년 서울대 경제학과卒▲88년 미국 오페이오 주립대학원 수료▲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崔相範(공학박사)=「조경식물의 내한성 대응성과 구분에 관한 연구」▲41년 경기生▲65년 서울시립대 원예학과卒▲71년 서울대 교육대학원卒▲모교 자연과학 조교수

◇ 崔成符(공학박사)=「POLY 막의 치환기 변화에 따른 기체투과 특성에 관한 연구」▲56년 대구生▲80년 모교 학공학과卒▲82년 모교 대학원卒▲모교 신기술 연구소 연구원▲교과 환경공학과 조교수

◇ 金榮時(공학박사)=「低 Methoxyl-ion의 의학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55년 전북 생신▲83년 원광대 입학학과卒▲85년 원광대 대학원卒▲원광대 강사

◇ 李昌珪(화학박사)=「한국인 철чин생의 출회장에 吳國根 교수

화학분야의 정상화설에 관한 연구」▲47년 서울生▲72년 고려대 화공과卒▲7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卒▲고려대 보건전문대학 교수

◇ 趙光來(공학박사)=「整合能動歸還幅器을 사용한 幅帶域 주파수 변환기의 특성」▲59년 경남生▲82년 모교 전자공학과卒▲84년 모교 대학원卒▲모교 견지계산·강식·▲유한 공업설계원에 단체협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 邱淳甲(공학박사)=「건축공사 관리를 위한 시스템화에 관한 연구」▲54년 대구生▲78년 영남대 건축공학과卒▲83년 연세대 산업대학원卒▲경복산업대학 강사

◇ 金慶南(공학박사)=「捌相殿의 구조 형식에 관한 연구」▲51년 경남生▲77년 부산대 건축공학과卒▲79년 부산대 대학원卒▲국립부산공업대학원대학 강사

◇ 金慶南(공학박사)=「捌相殿의 구조 형식에 관한 연구」▲51년 경남生▲77년 부산대 건축공학과卒▲79년 부산대 대학원卒▲국립부산공업대학원대학 강사

◇ 崔成符(공학박사)=「POLY 막의 치환기 변화에 따른 기체투과 특성에 관한 연구」▲56년 대구生▲80년 모교 학공학과卒▲82년 모교 대학원卒▲모교 신기술 연구소 연구원▲교과 환경공학과 조교수

◇ 金榮時(공학박사)=「低 Methoxyl-ion의 의학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55년 전북 생신▲83년 원광대 입학학과卒▲85년 원광대 대학원卒▲원광대 강사

◇ 金榮時(공학박사)=「低 Methoxyl-ion의 의학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55년 전북 생신▲83년 원광대 입학학과卒▲85년 원광대 대학원卒▲원광대 강사



모교 정년퇴임자와 함께

師弟之情 속에 학업전념
하는 학풍성성해야



權
鎮
東
教
授
▼

『예전에 발표했던 토토시공학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좀 더 수첩보와 함께 생각입니다』라고 퇴임소감을 대신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을 꺼내는 権鎮東 교수의 첫마디는 20년 6개월이라는 오랜간 단상생활이 그에게는 너무도 짧았다는 역설법적 아쉬움의 한마디를 느끼게 했다.

『토목공학과』가 이전에는 「도시공학과」라는 생소한 이름이어서 취업률이 저조해 학과명을 개정하는데 일컬었던 権 교수는 『지금 사회의 중심이 된 제자들이 찾아와 그때의 고마움을 표시할때면 아마도 내생에 가장 뜻깊은 일이 아니었

나 생각합니다』라고 옛날을 회고하기도 했다.

요사이 교관진주와 師弟之情의 부족으로 오는 교수와 제자간의 불신증조를

교수는 「소용들이 속에서도 끊어지게 학생 본연의 자세로 학문답구에 열중하는 길만이 진정 이사회를 밟게 만들어야 원동력으로 균형적인으로 당장의 時流에 맞는 혼들림이 아니라 학업에 전념하여 이사회에서 귀하게 쓰일수 있는 인력자원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국민훈장 錄위장 수상。

東國은 틀림없이 보다나은 미래 창조할수 있어



金
昌
混
教
授
▼

반영성을 모교에 몸담아 학

문답구와 후진양성에 몰두했던 金昌混 교수는 「뜨거운 여름날을 열심히 살이기듯이 나 역시도 드롭게 살려고 노력했으면」이라고 정년퇴임 소감을 밝혔다.

「亟히 말자」는 생활신조를 가지고 매사에 노력해온다는 金교수는 「60년대부터 지켜온 東國은 이제까지의 과정을 보는데, 틀림없이 현재보다나은 미래를 얻을수 있을것 같아 떠나는 아쉬움속에서도 걱정만은 떠나야 한다』며 조용히 웃을 짓는다.

동산으로 단련된 든든한 체구에서 잔잔한 덕을 풍기는 金교수는 「올해부터 활성화된 학자부처님 학생들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학교측은 이의를 비른 실행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라며 두 차례의 학강회에서 얻은 경기를 괴롭혔다.

학구열에도 불구하고 나이때문에 떠나는것이 원망스럽다는 金교수는 비록 교수직을 물려나다니도 학문과 학생들을 떠날수는 없기에 강사로라도 가르침을 계속하겠다는 굳은의지를 표명하며 「부패한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 진정한 사회인으로

다시 만나기를 반란다』는 당부의 말을 했다.

한국산업미생물학회 회장·식품과학회 회장역임, 녹초소성 품상·국민훈장노란상 수상。

학교발전위한 東國人 모두의 분발 필요해



吳
正
權
教
授
▼

『봄은 떠나도 마음만은 삼보의 언덕위에 남고싶으니다』라는 소감에서 도교와의 끈끈한 점을 느끼게 하는 申貞均 동문은 20여년간을 학교에 톱 달아 오면서 빙양했던 모교재정을 10배가량 살찌우는데 큰 기여를 한 동국고기리의 매서운 조연사였다.

불교를 전공하고 불교에도 인연이 깊어 선풍분은 지난 67년 처음 발령된 곳이 여성원으로 당시 재정난에 허덕이던 여성사업의 정성화를 이루어왔으며 76년 고려대 장경 영인본을 완간하는데도 큰 공을 세웠는데, 「佛教와 醫學을 저술한 정도로 학구파이기도 하다.

『시계처럼 정확하고 거울같이 거기 있는 사람은 되고 싶습니다』라는 실천속의 생활신조로 일관된 그의 꿈은 꾸고 도 우직한 성격에서 자그마한 진신을 여겨볼수 있었으며 「티내에 위치하지 않는 학생들이 되어주고, 학생신분을 지켜나가 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교를 빛내주기 바랍니다.」라며 않았다.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퇴임을 한바에도 계속 여성원 원수원법원에 남아 모교와 부처님께 조심이나마 봉사하고 싶다는 선풍분에게는 아직도 젊은 청년과도 같은 신선함이느껴졌다.

개 나라나 있다. <거북기>
「하늘의 밭자국」

馬鍾河 著

시인 馬鍾河(69·국립동문이 자신의 성장과정을 토대로 한자작곡) 김현소설「하늘의 밭자국」

『꿈과 자유를 찾아서』『마른 꽃과 새들』『여인과 아버지』와 청년과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나 6·4·19의 소율돌이를 거쳐 미아리 무허가판자촌에서 불안한 안정을 찾기까지 그렸다. <정우사기>

「人名錄」발간에 동문소식 담지」

「동문카드」滿員謝禮

○ 요즘 本會 우편함이 연일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다는데, 개인인증 「동국人名錄」 발간에 따른 각계 동문들의 「동문신사카드」가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

동국인이 어제야 오늘을 기록하고 더욱 발전하는 동국의 내일을 기약할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락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유럽의 지붕이 발아래

○ 날로 그 힘을 더해가는 東國의 氣勢가 마침내 유럽의 지붕위에 까지 펼쳐졌다.

지난 1980년 세계에서 8번째로 만나루봉 정상을 청복한 바 있는 「동국신학회」가

를 보내며 故이종환군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內實東國咸和 南桂음

○ 80년 동국역사에 또 하나의 산물이 落地「南桂음」이 지난 8월 기공식을 갖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착공하기까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공식 날 첫삽을 뜨는 동국인의 마음은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内實東國에 그저 뿐듯 하기만 했다고.

지난해 「만해시비」가 모교 정성에서 세워진데 이어 올해 「만해광장」이 건립으로써 東國은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학문적 기둥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東東國大同 동창회 힘동작임

동료대원의 복의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알프스 정상을 터치하고 아만부기 本東同動子 전동국인과 함께 친사

“동국은 이제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



現代自動車(株)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Y2소나타” 판매개시 2,000cc

판매과장: 柳在善
(70동경·ROTC 8기)

TEL 274-3103~7
아간 914-6584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종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 (86 경원)

• 全國不動產仲介業協會 理事

• 東區公認仲介士會 會長

전화: (사) 234-4777, 253-9321 (국)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국동아파트 청문앞)

西獨 보수 純正品

연료節減
엔진 출력 증가/수명 연장

■ 썬터자랑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録·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



信一金屬센터(株)

활동판·동판·활동파이프
동판지붕재 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영)

본사: 서울 동대문구 응우동 255-58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芸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경외)
- 사무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 흔례용 가구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明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 경영)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

* 전 6권 완제!
출판 170일 만에 250,000부를突破!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먹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 6권 완제!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 진진하게 펼쳐 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연개, 갈택한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짱과 돈키호테의 진지함, 대부의 균성으로 빼앗긴 땅에서 주먹개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金斗漢으로, 꿈꿔보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朝代 가장 늄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심적으로 기상천외한 행위를 암울하면서 우리를 기억해 인생무비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솔깃하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접어온 근대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긴박적인 삶과 죽음!**
을본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숱한 사람들, 이땅을 강탈한 일본 야구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령병이 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누우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 전 6권 / 국판·각권 300면내외 / 각권 값 3,300원 * 날씨표지 * 시장에 있습니다.

NORTHWEST

**미국여행—
만족스러운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노스웨스트에서는 더 많은 미국도시로
모셔드림은 물론 최소 미화 229불로
북미노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먼저 노스웨스트의 USA 패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시고
싶은 곳, 계획했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미국도시를 만족스럽게
여행하시려면 노스웨스트나 여행사로
전화만 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여장을
꾸미시면 됩니다.

USA PASSES

LOOK TO US  NORTHWEST AIRLINES